

언론

한국불교
불교언론 70년

直筆 통한 '불법홍포'...현대불교사의 사관

현대사회에서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등 매스 미디어들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로 매스미디어는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대중들은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불교언론들도 오래 전부터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불교 언론의 태도

사실 현대의 표교에 있어 불교의 가르침을 신문과 잡지, 라디오,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부처님께서 1250명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설법한 경전의 표현보다 수백 배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한국불교의 대중매체를 통한 표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 발자취를 더듬으면 일제시대 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0년 12월 원종(圓宗) 종무원이 잡지(圓宗)를 펴낸 것이 최초의 시도로 보인다.

일제시대 출판물에 대한 단속은 엄격했다. 국내에 발행된 잡지는 대부분이 종교잡지였다. 신문으로는 이에 앞서 1902년 일본불교 정토종이 당시 서울에 설치한 동양교보사에서 펴낸 <동양교보>가 최초의 종교신문으로 기록돼 있다.

해방 직후 불교계는 친일잔재 청산에 나섰다. 언론 분야도 마찬가지로 1946년 3월 1일 <신생>이 새롭게 태어났다. 신생은 같은 해 10월 종간됐지만 당시 몇 안 되는 불교잡지 중 하나였다.

1946년 5월 1일에는 월간 <불교신보>가 창간됐다. <불교신보>는 해방공간에서 활약한 혁신운동을 알려주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1950년 4월 <동대신문>, 1957년 종합잡지 <녹원>과 <불교세계> 등이 창간됐다.

주간 언론 창간... 전문 영역 구축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언론들은 크게 주간지, 방송, 인터넷이다. 주간지 부문에서 가장 먼저 창간된 곳은 <불교신문>이다.

<불교신문>은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청담 스님을 초대 발행인으로 하고 주필에 이종익 씨, 편집국장엔 안낙준 씨로 하여 1960년 1월 1일 <대한불교>라는 계호로 창간됐다. 이후 1961년 3월 <대한불교신문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1980년 10.27 법난 이후 강제 폐간됐으나 12월 21일자로 복간하고 현재의 <불교신문>으로 계호를 변경했다. 1988년 9월 지령 제364호를 <대한불교> 지령과 합산해 1220호로 변경하면서 역사성을 공고히 해나갔다.

<법보신문>은 1988년 경주 불국사 조실이었던 월산 스님을 발행인으로 창간됐다. 1994년 조계종 개혁 당시 종편에 의해 신문 발행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별도의 '편집국뉴스'를 발행하기도 했다. 2005년 '독립언론'을 선언한 <법보신문>은 지난 10월 27일 창간27주년 및 독립언론 10주년 법회를 개최했다. <현대불교>는 각계의 관심 속에 1994년 10월 15일 창간됐다. 한미음선원 대행 선사의 원력이 담긴

<현대불교>는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출발했다. 1995년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개설했으며, 2000년 '부다뉴스'를 개통하며 불교계 최초 인터넷 실시간 뉴스를 시작했다. 창간호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지면을 인터넷을 통해 PDF 서비스 실시하는 불교계 언론은 <현대불교>가 유일하다. 2003년에는 불교계 언론 중 처음으로 32면 체제로 증면하기도 했다.

부산 대각사 경주 스님이 1982년 창간한 <불교회보>는 현재 <주간불교>로 제호를 바꿔 운영하고 있다. 주요 종단에서도 자체 언론을 보유하며 매체 포교를 시행하고 있다. 태고종은 <한국불교>를, 천태종은 <금강신문>을, 진각종은 <밀교신문>을, 총지종은 <총지종보>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에서도 불교를 만나다

불교계 매체 표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방송이다. 방송 표교의 시작은 라디오로부터 시작됐다.

1910년 <원종>, 불교언론 시작

해방공간서도 꾸준히 매체 포교

1960~80년대 주간 신문들 창간

<현대불교> 인터넷 사이트 첫 개설

<불교포커스> 등 인터넷 언론 부상

BBS·BTN 개국... 방송포교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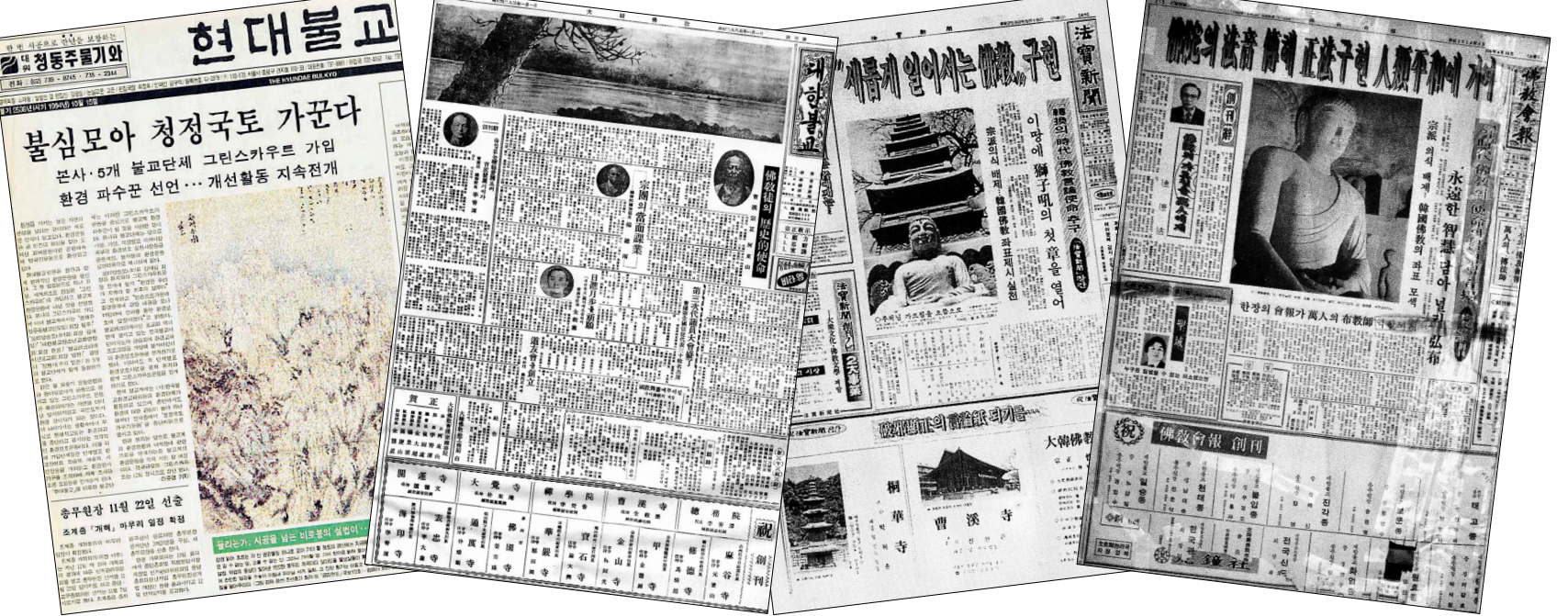
(재)불교방송은 1990년 5월 1일 역사적인 시작을 알렸다. 지상파 라디오 방송으로 개국하여 2008년 BBS TV로 영상포교에 진출, 불교종합미디어로서 방송 포교를 이끌고 있다. 올해 창사 25주년을 맞아 다마콘서트, 9시간 특별생방송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으며, 제2 개국을 위한 사옥 마련도 추진 중이다.

1995년 3월 1일 BTN불교TV가 개국 고블식 '안녕하십니까. 불교텔레비전입니다'를 첫 방송으로 문을 열었다. BTN의 개국은 '세계 최초 불교 전문 TV 방송'이라는 세계불교사의 새로운 한 획이었다. 하지만 IMF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방송 중단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

긴축 운영 등을 통해 재정 내실화에 나섰던 BTN은 2008년 4월 서초구 방배동에 사옥을 마련하고 '서초 시대'를 연다. 지난 3월 7일에는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국 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불교종합미디어로서의 도약 △한국불교세계화에 앞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신행문화 확립 △불자공동체 로 웨어라이프 실현 등 4대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인터넷 언론 탄생... 보도 지평 확대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언론이다. 불교계 IT 환경변화도 고



불교계 주요 주간언론 창간호. 사진 왼쪽부터 <현대불교>, <대한불교(불교신문 전신)>, <법보신문>, <불교회보(주간불교 전신)>. 주간지는 불교 전문 언론으로 한국 현대 불교사를 기록했던 사료이자 매체 포교의 중심에 있다.



1990년 5월 1일 BBS 불교방송 개국 기념 법회. 한국 최초 불교 전문 라디오 방송으로 출발한 BBS는 2008년 TV방송국을 개국하고 종합미디어로서 면모를 다지고 있다.



1995년 3월 1일 BTN불교TV의 개국 모습. 세계 최초 불교 전문 TV방송국 개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순간이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BTN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개 언론지형을 바꿔 놔다. 1995년 불교계 최초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출범한 '부다피아'의 경우 2005년 전면 개편을 하면서 현대불교신문의 인터넷판인 '부다뉴스'를 독자들에게 서비스했다. 전자서점과 뉴스를 기반으로 한 '부다피아'는 텍스트, 동영상, 오디오, 사진, PDF파일 등에 대한 정보검색 및 동영상·오디오 법문·강의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여기에 <대중불교>등 20여 불교잡지 보기, 7만여 장의 사찰·문화재 사진, 인물사건 서비스, 고서 열람 및 사회복지 정보 제공, 사이버 갤러리 운영과 POD(맞춤형 출판) 서비스, 신행 및 수행 상담, E-book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었다.

1999년 창립한 불교정보센터는 2002년 <불교포커스>를 출범했고, <불교신문>·<법보신문> 등 주요 주간지들도 잇달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주간지들의 홈페이지 오픈은 주간신문의 한계를 넘어 일간 또는 실시간 체제로 뉴스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뉴스 활성화로 2007년 이후 현재 불교계

에는 <불교닷컴>·<미디어부다>·<불교플러스> 등의 언론들도 연이어 만들어졌다.

BBS불교방송과 BTN불교TV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보기, 다시보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불교TV는 지난해 보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인 'BTN NEWS'를 개설하기도 했다. 또한 대다수의 불교 언론들은 모바일용 홈페이지 역시 제작·운영하고 있다.

정보화시대 불교 언론 과제

스마트 기기들이 대중화되면서 불교계 언론이 가지고 있는 속제도 적지 않다. 인터넷 언론의 출범은 기존 불교계 주간언론이 하지 못한 아이템들이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 중심으로 언론 구조가 개편되면서 정작 중요한 신행·포교, 문화, 학술 등은 소홀해진 경향이 크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둔감해 뉴미디어 부문이 개발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것도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강신문>의 사장을 역임한 이은

운 前 중앙일보 종교전문 대기자는 본지 20주년 특별기고는 곱씹어 볼만하다.

그는 본지 기고에서 "불교언론은 대체로 종단 배경의 포교목적에 가진 기관지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포교는 자신의 뼈를 깎고 살을 베는 자성과 참회를 수반할 때 중생구제의 원력에 진정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불교언론은 불교의 예언자적 사명과 항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불교언론은 인류의 보편윤리에 반하는 탐욕을 선지자적 입장에서 경고하고 그 재앙을 알리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식성 기사와 추잡한 종권다툼을 대서특필하는 것이 불교언론의 비판 기능이 아니며, 영험이나 공덕을 신화화하고, 선전하는 것이 불교언론의 포교역할도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적 지혜를 보시하고 현재적 불국도를 건설하는 불사를 앞서서 끄는 것이 불교언론의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 실천회. ■ 세종대왕 선양회.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분, 공양주 하실분 지역사회에서 큰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대불정능엄신주 각종경전 독송방법 지도.
- 동참하시는 분에게 소불을 드립니다.
- 창업 개업 하실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드립니다.

창업, 개업을 하실 분 상호, 좋은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홍증 ☎ 02)739-5008

꿈바위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자녀 교육문제, 대학 입시기도
- 사업성공, 가족갈등
- 변비, 지방간, 당뇨, 비만, 알콜중독, 특별기도와 지도함
- 대학입시 합격기도 전화상담가능

가정 및 회사 방문하여 기도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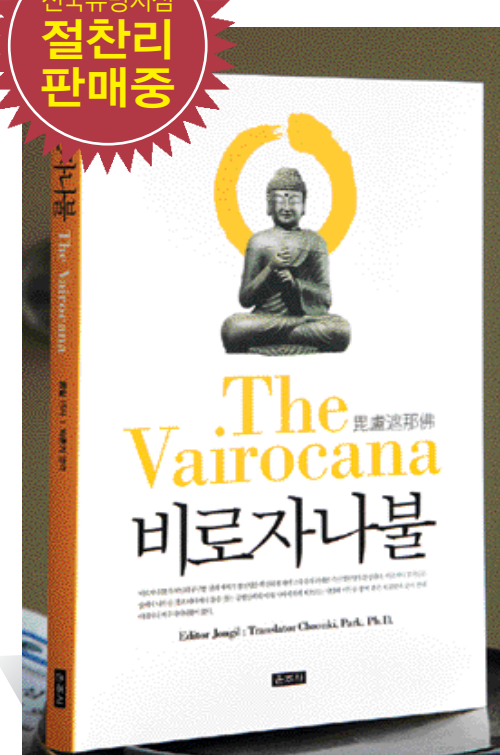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시 중구 대흥동 468-1
010-6789-5008

참 불자를 위한 성불로 가는 지침서

종일스님의 비로자나불

21C 3대 과제 : ①인간과 자연의 화해 ②종교 간의 화해 ③지식과 삶의 화해



종일 편저 박종기 영역 193쪽 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The Vairocana

나무 암암람람캬 청정법신 대교주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불! 부처님의 무구한 진리 자체가 법신임을 확신하게 하며 소우주의 위대한 즉신성불임이 분명하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숲에서 나무를 찾고 바다에서 물을 찾는 중생들에게 마치 사바세계에 떠오르는 태양과 어두운 밤에 밝은 보름달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체득함으로써 우리네 삶이 영원히 나고 죽음이 벗어나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이치인가! - 불교TV 회장 석성우 스님의 추천사 중

■ 구입문의 : 도서출판 운주사 02-3672-7181

통계

통계로 본
한국불교 70년

도전·변화 속 성장... 이젠 내실화 힘쓸 때

통계는 한 집단의 성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국불교에 대한 통계는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해방 이후에는 정부가 집계했다. 정확한 종교 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85년부터 10년마다 시행된 정부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이다. 마지막 인구 센서스 조사는 2005년에 이뤄졌다. 최근에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2011년부터 매년 대국민 여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복 70년, 한국불교는 어떤 성장세를 보였고 신도들의 신행 척도는 어느 정도일까. 1946년 남조선과도정부가 편찬한 <조선통계연감>부터 1966년 문교부가 발간한 <종교통계요람>, 통계청의 '인구센서스(1985~2005)', 문화관광부가 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2008, 2011)>, 한국갤럽의 <한국의 종교(1984~2014)>, 불교사회연구소의 2014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살펴봤다.

불교, 양적 성장을 이룬다

조선총독부의 1943년 통계 자료가 수록된 <조선통계연감>에 따르면 해방 당시 한국불교의 신도 수는 약 58만 명이며, 사찰과 포교소 수는 1466곳, 스님 수는 1217명으로 집계된다. 당시 기독교는 신도 수는 32만 명으로 불교보다 적었지만 교회는 4700곳, 목사·신부는 3705명으로 불교보다 많았다. 이는 외국인 선교사의 유입과 이를 통한 교세 확장이 일제 강점기 말부터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고 경제 개발이 이뤄지면서 1980년대 들어 불교 인구, 사찰, 스님의 수는 빠르게 증가한다. 사찰의 경우 1966년 2717곳에서 1985년 8892곳, 2008년 21,935곳, 2011년 26,791곳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님의 수도 1960년대 1만여 명 수준에서 1985년 23,976명, 2008년 41,362명, 2011년 49,408명으로 늘어났다.

고도 성장이 진행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불교에 유입되는 재화가 늘어나면서 양적 성장을 이룬 부분도 있지만, 종단의 증가도 한 몫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가 발간한 2011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한국불교 종단은 265곳으로 3년전 조사보다도 증가했다. 불교를 기반한 재단·사단법인도 207곳에 달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 통계이지 미파악된 종단·법인 수도 상당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한국불교의 종단이 늘어난 것은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이 시행되는 것과 밀접하다. 종교법인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이 무렵 66개의 신생종단이 등장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위 '유사 조계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성장 속에 드리워진 그림자

불교 인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1943년 588,210명이었던 불교 신도는 1966년 938,093명, 1985년 8,059,624명, 2005년 10,726,46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종교 인구 분포와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성장 속에 이면의 드리워진 그림자를 볼 수 있다.

2005년 통계청의 행정구역별 종교 인구에 따르면 불교는 경상권, 제주권에 편중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계종의 가장 많은 본사가 몰려 있는 전라도 지역과 한국 인구의 1/3이 모여 사는 서울·경기 지역도 개신교의 교세가 압도적이다. 취약지역, 특히 수도권과 신도시 포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 조사기관인 한국갤럽(대표 박무익)이 지난 2월 12일 발간한 <한국의 종교>를 살펴보면 불교 인구의 변동 추이의 예후는 좋지 않다. 10~30대의 인구가 적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의 경우 2014년 현재 2030세대 비율이 10% 내외, 5060세대가 30% 이상으로 연령별 격차가 크다.

부모-자식간 종교 일치율은 현재 불교가 부친 일치 67%, 모친 일치 82%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와 천주교도 종교 일치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고도 성장 이후 종교 관심 높아

불교 신도·사찰 수 비약적 증가

2000년대 정체... 젊은층 줄어

불교 인구 경상남북도 편중돼

법회·수행 빈도 적어 대책 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종교 일치율은 부모의 영향으로 종교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종교의 세대 전승 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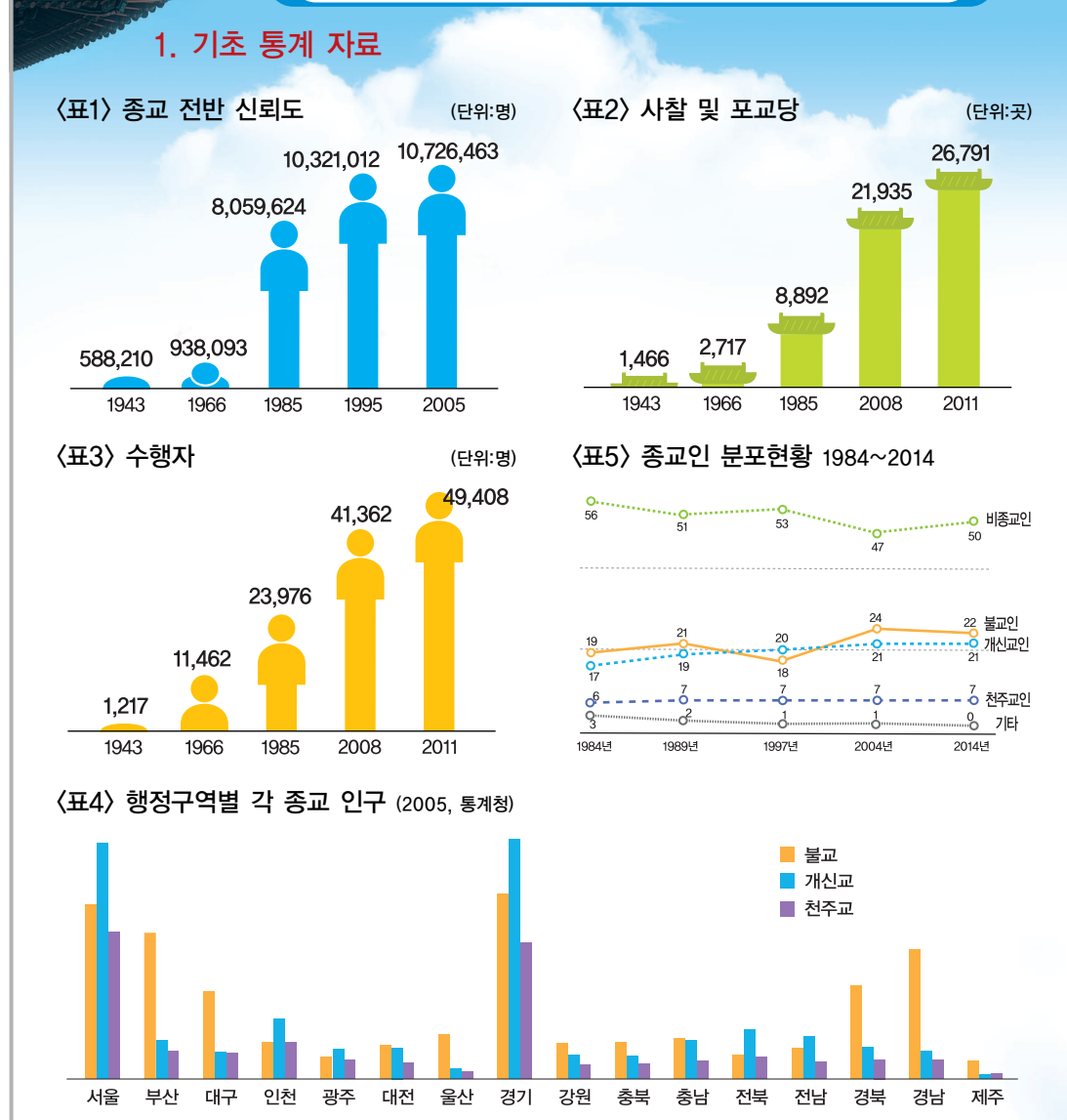
이에 대해 보고서는 "2014년 현재 한국종교는 가족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다"면서 "불교인의 가족구성원 종교 일치율이 높은 편이지만, 불교인 다수가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면 세대 간 전승을 통한 인구확장성은 전 연령이 고르게 분포한 개신교 쪽이 더 크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가족의 종교'로 종교 지형이 바뀌고 있는 만큼 '가족신행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젊은 불자의 이탈을 막는 불교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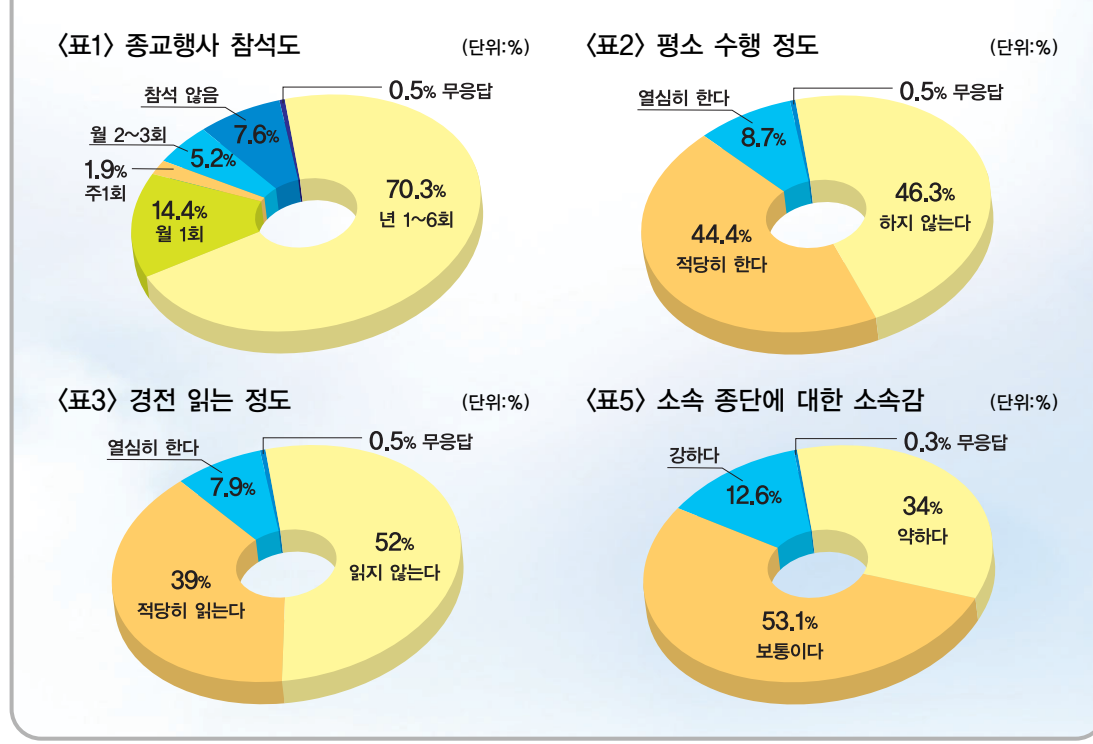
이명호 한양대 강사는 지난해 4월 열린 고신문화재단 세미나에서 발표한 '2030년 한국 종교 지형의 변화와 불교' 제하의 논문에서 "총 인구 감소로 인해 절대적 규모의 종교인구가 줄어 미래의 포교 활동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교 효과는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럴 경우 가족 내 세대 계승이 포교의 기본이 되고 종교 존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족 내 세대 계승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가족 단위의 신행활동이 우선시 돼야 한다"

1945~2015 한국불교 주요 지표



2. 신앙생활 (2014년 불교사회연구소 조사)



면서 "음력 중심의 법회 운영과 각종 성지 순례는 고령층 여성에게 최적화돼 있는 만큼 보다 확장성 있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행·수행 약한 불교, 대책 필요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요구받는 것은 '양보다 질', 즉 내실화이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2014년 발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신행의 척도인 '종교행사 참석도'에 있어 불교 신도 대부분은 '1년에 1~6회 사찰에 간다(70.3%)'고 응답했다. 매주 사찰에 가는 사람은 1.9%에 불과했다.

평소 수행에 대한 질문에도 하지 않거나(46.3%) 적당히 하고(44.4%) 있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8.7% 정도였다. 경전도 읽지 않았다. 52%의 불교신도들은 경전을 읽지 않고 있으며, 7.9%만이 경전을 '잘 읽고 있다'고 답했다.

종단에 대한 소속감 역시 약했다. 응답자의 34%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12.6%만이 강하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한국 불자들이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낮고, 자기 종교에 대한 소속감이 희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불교 포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불광사 불광연구원원이 지난 4월 '한국 종교 지형의 변화와 불교의 미래' 연찬회에서 이뤄진 주장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찬회에서 현재 불교 상황에 대해 윤승용 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불교인이 시주하거나 절에 가는 것은 연례행사로 나타나고 있다"며 "조직종교로서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크게 뒤지는 등 내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이사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대안적 삶에 불교가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윤 이사는 "우리 사회는 아직 개발 신화와 성장 신화에 목을 매고 있다. 저성장 사회에서 삶의 방식은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라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한국 종교, 특히 불교는 대중들의 삶의 질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로 나선 고명석 조계종 포교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불교 상징대 문화의 정립과 전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고 연구원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장례식을 어떤 형태로 치르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에 68%가 불교식, 27%가 유교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막상 현장에서는 유교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불교식 문상례, 불교식 상차림, 불교식 장례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불자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느끼는 포교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불교 인구 감소보다 심각한 것은 신행의 질이 낮아진다는 점"이라며 "'불자신행점검표' 등을 활용해 불교 신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방안과 신행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기적의 파스요법 저자 - 남산큰스님

건강 친견 **신행 상담**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리며 동풍을 일으켰던 남산큰스님 10년만에 다시 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친견 파스 한 장으로 모든 질병 예방법, 편하게 사는 법, 비만관리의 100% 성공비결, 내병은 왜 낫지 않는가? 나무 양치로 건강관리법, 파스요법 전수

신행상담 | 자식·부부·사업·조상·부동산·창업·취직·승진

친견입장

서울 ▶ 2015.11.19(목)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6-6 동광빌딩 (신촌역 8번출구에서 30m 직진한후 좌측길로 100m전방 대략한키퍼스 5층)

부산 ▶ 2015.11.20(금)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429 (지하철 1호선 장전역 3번출구 안)

대구 ▶ 2015.11.21(토)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037-4 지하1층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지하1층)

예약전화 080-300-9928 ※사전예약 확인반만 친견이 가능합니다.

포교하기에 어려운 스님들께 특수비법전수

약력
이차의과대학교 외과박사
(01)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연의학과 석사 교수
(02)중국 요녕성 중의대학교 객원 교수
(03)영국 쉐프스던 대학교 객원 교수
(04)일본 의과대학교 교수
(05)한국과학기술원 연구소 소장

저서
(남산큰스님의 고수파스 치료법) (전주출판사 펴고 군산출판사 펴고)
(오다카리 탄산인연 모두가 부처이다)
(불교산학)
(핵심 반야경)
(중국을 모르니까 당하고 돌아오지)
(좋은 인연 맺는 법)
(남산큰스님의 수족요법)
(남산큰스님의 약산요법)
(공자의 질병 치료법)
(남산큰스님의 숨겨진 민간요법과 놀라운치료법)
(남산큰스님의 기혈수리법)
(남산큰스님의 팔자요법)
(남산큰스님의 태이요법)
(남산큰스님의 신비한 오기요법)
(남산큰스님의 위험한 질병을 왜 못가지는가)
(차라니에는 중생도 부처로 되고 중생에게는 부처도 중생으로 보인다) 등 다수

MBC 최정준중 / 불교등 세상
SBS 호기심왕국 / 모닝워이드

JJUN Heating System Module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이점

-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 04 D.I.Y 시공 가능
- 05 저온수(45°C ~ 50°C)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공 대상 : 사찰 및 임차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화성 : 010-3168-9250	대구 : 010-3259-3520
부평 : 010-2310-0404	기흥 : 010-8378-3375	울산 : 010-4597-5577
의정부 : 010-5759-8804	용인 : 010-9807-4862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광주 : 010-6890-0365	양산 : 010-6294-6126
광명 : 010-7526-3300	여수 : 010-3612-7784	통영 : 010-3592-2447
안산 : 010-2487-3393	익산 : 010-6610-2337	고성 : 010-4578-0961
오산 : 010-2043-4336	김천 : 010-9091-4583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로 61(영학동)